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전구원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회
총회교의 사목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집회)

에스더

에스더는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 땅 위에서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세 사람(이브, 방세바)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460년 전에 살았던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었다(에 4:16). 외모는 전혀 다르고 시간적으로 46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은 예수님과 흡사하다(사 53:2,3).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리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임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그 당시의 암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은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과 어김없이 함께 계셨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hash으로 왕이 180일이나 계속하여 잔치를 베풀고 대서부터 시작한다(에 1:4).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게 했으니 왕스다는 이를 거절한다. 왕후 왕스다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나쁘게 사용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에 1:11,12).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왕은 그녀를 내어 쫓고 왕후로 에스더가 뽑힘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다(신 6:4,5, 57:7-9).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자 하만은 자신의 bones을 이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다 멸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에 3:6). 그는 왕을 부추겨 유대인들을 죽여 재산을 약탈하고 그 이익의 얼마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간청한다(에 3:13).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말한다(에 4:13,14). 그때에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자 내어 놓았다. 에스더는 왕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왕은 그의 홀을 내어밀며 모든 규례를 어긴 에스더를 향하여 들어오도록 허락한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결국 모르드개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교수대에서는 하만이 죽게 되고 모르드개는 왕궁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유대교의 절기인 부림절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에스더를 칭찬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었을까? 에스더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쳤던 행상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하나의 상징이라 부른다. 한 개인에게 있었던 단 한 번의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일의 부분적인 완

성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갈 3:6,7,29). 그러나 아브라함이 에스더는 믿음과 믿음의 실천을 행한 많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 중의 한 형태이다.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리지 않지만 모르드개가 배움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는 모습은 바로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례(의식)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에 4:1,3).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향하여 삼 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에스더는 아hash으로 왕이 밤 잠을 이를 수가 없어서 그의 역대 일기를 보게 하고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바로 이 사건이 모르드개로 하여금 하만의 죄를 물리치고 승리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에 6:11,12).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분명하게 모른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거나, 어쩌면 예수님 편에 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곳에 계시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던 때도 있었다(행 4:12).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에스더의 용기와 그녀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모르드개는 오직 한 사람 에스더에게 호소하였고 에스더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은 당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에 4:11). 오직 살 길은 왕이 금 홀을 내미는 것이었다. 사실 에스더는 이것을 기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아hash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의 눈을 에스더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다. 에스더는 그녀의 발걸음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위해 갈보리에서 흘려 사 계신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요 17:1,2).

구주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은총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에스더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쁨이다. 그녀의 호된 시련이 마침내 환희와 축제로 끝났기 때문이다(에 8:16). 예수님의 백성들 역시 시험이 끝나는 그 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임하게 될 것이다(계 21:4).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통이나 시련은 하나님께로 개입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인 시련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참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수치를 기념하며 우리는 풍성한 은총

오늘, 제7차 성찬식 1부~5부 예배 시



의 종말은 영원히 비참했을 것입니다(에 2:3).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쫓겨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위해서 나의 몸을 찢으며 나의 피를 쏟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전 10:16). 성찬을 통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

이번 주(8일), 수요일 2부 예배 시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헌신예배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 "죄인 중에 죄수"(딤후 1:15)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남보다 죽노라"(고전 15:31)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바울을 바라볼 때 그는 불쌍하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바울이 불쌍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한때 가문과 학식,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주재할 수 없었던 바울을 이처럼 낮아지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갈 6:14). 그는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무위와 조롱,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고전 11:23-27).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유익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빌 1:21).

이제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은총의 십자가 앞에 충헌의 모든 중직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드려질 헌신예배를 통해서 모든 중직자들은 더욱 회개할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내고 복음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의 일군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롬 15:16). 이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예배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바랍니다.

GOD'S RIGHT HAND

(16)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two-edged sword; an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17)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like a dead man. And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saying,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18) and the living One; and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 (Revelation 1:16-18)

The Bible often mentions the almighty strength and influence of God's right hand. In today's Bible verses, the Apostle John actually felt the right hand of God touch Him. When Jesus placed His right hand on John, He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and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vv. 17&18). How powerful is that? Whenever we have something loving and important to say to someone close to us, we usually touch them with our right hand, just as Jesus touched John. The authority and power of Jesus' words are immeasurable and all encompassing.

God's right hand means deliverance. Moses and the sons of Israel sang to God, "Your right hand, O Lord is majestic in power, Your right hand, O Lord, shatters the enemy... You stretched out Your right hand, the earth swallowed them. In Your lovingkindness You have led the people whom You have redeemed; in Your strength You have guided them to Your holy habitation"(Ex. 15:6, 12&13). The Israelites lived in Egypt as slaves for 430 years, but God saved them. He led them to the Promised Land.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on dry ground, but their enemy perished. God is the God of Israel, and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Is He the deliverer of your life? Do you really believe that He can save you from your enemies? Do you feel His right hand upon you?

God's right hand provides for everything you need. When you need something, where do you go? If you have a problem, where do you search for the solution? Some people think they do not need anyone but themselves to live this life and others run to the world's experts and professionals for help. Let me ask you, who gave you the breath of life? Who do you think made the air you breathe and the water you drink? The answer is God, so please do not forget that He is the source of all life, "In whose hand are the depths of the earth, the peaks of the

mountains are His also, the sea is His, for it was He who made it, and His hands formed the dry land"(Ps. 95:4&5). God is the Creator God. H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Isaiah 40:11 reminds us, "Like a shepherd He will tend His flock, in His arm He will gather the lambs and carry them in His bosom; He will gently lead the nursing ewes." How wonderful is that? Psalm 23:1 also say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which is why Jesus says,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Mt. 6:33). You can trust God! Paul told the Philippians, "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Phil. 4:19). God has a mighty right hand.

God's right hand gives you blessings. Peter told the lame beggar, "I do not possess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walk! And seizing him by the right hand, he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his ankles were strengthened. With a leap he stood upright and began to walk; and he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Acts 3:6-8). Amen. God used Peter as His instrument. His right hand became part of Peter's hand, and Peter's hand touched the right hand of the lame man, bringing immediate blessings.

The Apostle John experienced God's right hand touching him. He heard Jesus saying,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and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vv. 17&18). Can you imagine the power of those words as the Mighty God laid His right hand upon him? I hope God's right hand touches you. Right now, what kinds of things touch you? Is it money, fame, or other worldly things? I hope you are anxious for God's right hand to touch you. He will deliver you from death, provide you with everything you need, and bless you eternally. Amen. 🙏

하나님의 오른손

⁽⁹⁶⁾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⁹⁷⁾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⁹⁸⁾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찌더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16~18)



김성관 목사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힘과 권세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이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찌더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18절). 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보통 오른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능과 능력은 가히 측량할 수 없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축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출 15:6,12,13).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그들의 대적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유일한 구원의 손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언가가 필요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대가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달려갑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을 과연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

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시 95:4,5).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11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 23:1은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하나님의 오른손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께 하늘의 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구절하는 얏은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여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행 3:6-8).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베드로의 손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손이 얏은뱅이의 오른손에 닿자 그 즉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찌더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7,18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셨다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바로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 혹 다른 세상적인 것은 아십니까?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2006년 제3차 청지기 훈련을 통한 은혜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6:13)

수치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이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을 입은 죄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을 즐기며 살았을 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시 119:136)라는 말씀으로 주님만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사랑으로 감싸며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릅니다. 기도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애송하며 울부짖을 때 “내가 너의 곁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흔쾌히리이다”(시 32:8)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정말 주님의 간절한 응시를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참만한 사랑을 느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이처럼 사랑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참만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자식의 대학 입학, 질병,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3일 금식, 40일 한 개 금식을 반복하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단 한 번도 고개를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였지,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약한 육신을 주님께 감히 바치오니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정기순(권필, 2교구)

그 말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청지기 훈련, 그 밤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든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어떤 양 생행위에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해 왔던 내용이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유익을 꾀함으로 인해 칭찬받기를 즐겨하였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던 저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다짐하였던 저, 주님의 십자가 복을 증거에 혼신을 다해 남은 일생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던 저. 그러나 어느 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대우를 제가 가로채기 일쑤였고 주님의 명령에는 제 권위와 사장이 여의치 않음을 핑계로 수없이 못 들은 채 외면하여 왔으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앞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애태웠으며 세상의 축복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정말로 가슴스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열심없고 뻔뻔스러운 저에게도 예수님께서서는 변함없이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학수 고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의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는 수치심은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평생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란오는 수치감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슴스러운 죄인을 다시 한 번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하경(집사, 4교구)

셀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이번 청지기 훈련의 주제는 ‘구원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연단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여 모 이통통신사의 광고 멘트처럼 주님을 잠시 깨두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나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주님만이 진짜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청지기 훈련의 말씀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오늘 청지기 훈련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깊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십자가 보혈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만을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치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보다 더 많이 셀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오로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놀랍고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십자가 보혈의 군사로써 더욱더 말씀으로 연단된 내 자신이 되어야겠다는 기도로 이번 청지기 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준성(교사, 사랑부)

나 행한 것 죄뿐이나...

‘나 행한 것 죄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번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고, 내가 하고, 내가 살던, 회개 없이 은혜만을 바라던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수치로 인하여 더욱 주를 찾게 하셨으며 주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며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나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청지기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합당하고 지처서 주님께 할리 위로 받고 싶었다. 잠깐의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주 안에서 쉼을 찾고 싶었다. 주님은 자비와 넓은 사람으로 그런 나를 품으시며 말씀하셨다. “왜 나를 멀리하느냐?” 하며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조금이나마 보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나를 애타게 부르시고 겸손하고 겸손을 깨달았다.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따라서 십자가는 한없는 은혜임을 보게 하였다. ‘내가! 나는!’만을 의지던 내 모습에서 수치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던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은 어려서든 죄인에게 빛이 되어서 한없는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다. “주여, 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나 주 예수께 비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박유미(예바디부)

제3차 청지기 훈련

수치를 통한 회개와 감사

언제나처럼 참석하 청지기 훈련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확실하게 달랐다. 청지기 훈련 참석 전에 '구원에 이르는 수치'라는 설교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들은 어느새 마음을 사로잡는 심령으로 변화되었다. 금요일이 되어 훈련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2시간 내내 나는 가시 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었다. '수치를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히 옳은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자와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을 깨뜨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모르고 있는 죄보다 알고 있는 죄가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에 따라, 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번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라고 나 혼자 위로하며 지은 죄들이 많았기에 나는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였다. 그리고 내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겠던 가벼운 약속들이 떠오르면서 그 또한 회개의 제목이 되었다.

'수치'라고 하면 만민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이번 말씀을 통해 '수치'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수치', 그것은 일말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2시간 동안 가시 방석에 앉은 기분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기분으로 바뀌며 수치를 통한 회개와 감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을 무시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지으신 전지 전능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내가 참 '수치'로 다가오면서 나를 괴롭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나를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다. 2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수치'도 느끼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이번 청지기는 내 신앙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축제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치를 통해 만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은애(고동부)

참 나의 수치

'구원에 이르는 수치'라는 청지기 훈련의 주제를 보며 '수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 한 번 더 눈길이 가긴 했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청지기 훈련에 참여했다. 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수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갈급해 하다가도 마음이 간사해 어느새 미련해지고 문해진 심령은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뒤로 하고 세상과 사람,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매순간 살아나는 '나'와 '자존심'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가장 기쁜 축제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치를 통하여 사는 것이었다.

미움과 증오로 남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에 가시밭을 만들고 기도한답시고 계속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참 나의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주님 저는 그것이 주님을 막대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멸시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정남(집사, 16교구)

불쌍히 여기옵소서!

지난 청지기 훈련 때 '베드로의 회개'란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과 내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전의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은 여전히 죽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은 육체의 정욕과 안락의 정욕, 이성의 지략으로 얼룩져 있음을 제3차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수치'라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가 나의 기도였으며, 그 동안의 나의 신앙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먼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세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고 내 속에 가득한 자존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짐으로써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록(만수장사, 12교구)

오직 믿음으로만!

제가 천령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큰 아들의 교통 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선생님들 통해 열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섬기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무프스'라는 회개 병이 생겼습니다. 교구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었고,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윤 9월에는 친정 어머니가 뜻하지 않은 심장 대동맥 파열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마취에서 회복이 되니까 빨리도 하루 이틀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 아파 오는 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6시간 만에 어머니를 의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사하며 청지기 훈련을 받는 모습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청지기 훈련 중 은혜는 많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수치'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저는 오직 수치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았으니 도로 찾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수정(집사, 7교구)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고

할렐루야! 먼저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원에 이르는 수치'라는 제목으로 행해졌던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내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맞지 않았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내 심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말로만 주님께 맹세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약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을 주님과 같이 섬기려던 내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 다. 주일마다 설교는 듣되 단지 들은 것으로만 끝내며 만족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머리로는 깨달았던 믿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하여 다시 내 교만한 자리에 대해 진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여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느니라"(계 20:12). 지금까지의 청지기 훈련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내 심령과 골수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 맹세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 앞에서 이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 싶어 했던 연약한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굳건히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회개하는 맘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석혜림(집사, 11교구)

성령의 줄로 하나되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잘 다듬은 보석같이 서치 흠여지면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성령의 줄로 하나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언어 실사를 다시 받으며 더욱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모난 부분이 보일수록 서로 보듬어 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속에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사역지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 매우 힘들고 지쳤지만 팀원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셨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구체적이었다. 현지 통역도 없고, 영어에도 능하지 않은 우리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동하는 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가능했음이 분명하다.

전현신(권사, 5교구)

뜨거워진 내 마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현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선교지로 향했다. 첫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나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다들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날씨는 무척 더웠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 팀 모두의 마음이 설레었다.

둘째 날부터 사역한 곳은 꽤 큰 마을이어서 유동 인구가 많아 사역하는 내내 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주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고 모든 연령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특히 어른신들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신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단순히 인간적인 고백이 아닌 그들 심령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소망한다.

사역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한 성경책을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분량이 많지 않아 몇 사람들에게만 성경책을 드렸으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쌓아 그 곳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 기뻐했다.

조현숙(성년 1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선교지는 공식적으로는 불교 국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불교를 믿는다고보다 자신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듯하였다. 팀장님의 인솔 하에 한 마을에 도착하였다. 팀을 나누어 가정 방문 사역을 시작했다. 전날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는데 사역 첫날에서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소년들을 만났다. 함께 복음을 읽자고 하니 짜증을 내며 싫다고 하던 소년.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가 말을 읽는 모습을 보자 그 소년은 마음을 열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전도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였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다음 날 오전 사역에서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오전 내내 비가 와서 농촌 지역에 갈 수 없었던 우리는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마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한 가정에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너무나도 진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도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라고 고백하였다. 감사 찬양을 함께 드리며 성경책을 받은 후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에 나가겠노라"라고 고백을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또 한 명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 영혼을 통하여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최지은(사망부)

부족함을 감사!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이 나에게서는 정말 큰 감사의 제복이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의 쉽지 않은 사역이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항상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지 않았기에 정말 안타까웠다. "예수님을 아세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자신있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닌 그저 선생 내지는 좋은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답답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사역 평가 때 나의 현지어 실력이 서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다. 만약 내가 영어나 현지어를 능숙하게 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고 고맙한 마음이 생겨 주님보다는 나를 자랑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현지어가 서툴렀기에 나는 더욱 기도할 수 있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더욱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다.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우리 팀은 예수님같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었다. 정말 매일같이 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

홍성은(대학부)



교회 랑방 전혜선 조(청년 1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



한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창가에서 기쁨이 배어 있는 듯했다. 또래의 청년들이 겪는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들이 토해 내는 예수님은 과연 답일까.

'전혜선' 조를 소개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 1부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전혜선, 조장)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노건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속물 중에 속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변함 없는 은사로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저는 단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박선진)

모태 신앙인 저는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하고 끈질기 분이셨습니다. (기용영)

신앙 생활은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오전에 믿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은 매우 바빠졌지만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은 간절해졌습니다. (남상민)

중국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믿게 되었는데, 순간적인 신앙과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중국인 친구와 함께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에 기다리고, 금요일에 기다려집니다. (김정민)

주요예배가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 놓게 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가진 것들을 내려 놓으면 아무 것도 안 될 줄 알았지만, 막상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 놓으니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저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깨닫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전혜선)

저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주님은 알고 인도하셨습니다. (노건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는?

전혀 내로만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만을 완전히 깨뜨려신 주님은 저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한 때의 제 모습을 기억하면 친구들이 "무엇이 나를 바꾸었나?"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모든 것이 서름습니다. (박선진)

저의 삶의 장래가 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와 친척들 간에 있었던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남상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응성이 정말 좋습니다. (전혜선)

고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현재 제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속에서 더욱 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전혜선)

세상의 것을 포기하니 당장 잃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지체들을 삼킬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생겼습니다. (박선진)

저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의 길을 막으셨고, 이제는 바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모든 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 1:16). (김정민)

현재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용영)

중국인 친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중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정민)

주와 사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노건일)

저의 가족,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선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예수님의 응성을 듣는 일만이 되길 기도합니다. (전혜선)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

주인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 1부 토요일 집회에는 나오지 않는 모든 청년들이 청년 1부 집회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정민)

올해 3월, 청년 1부에 처음 나와서 그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청년 1부를 통해서 만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2교당 4층입니다") (박선진)

공동의 고민과 아픔을 가진 또래의 청년들이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참 고개가 있습니다. (전혜선)

아리송한 부자 청년을 기억하는가? 그는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유망에도 충실했지만 결국 그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전혜선' 조의 자제들은 '세상'도 아닌, '자신'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들의 '젊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세상을 나날 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데하여 그리로 내려가리라"(골 3:14). (전혜선)

네 영혼이 주를 찬양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따라 왔도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생각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리스마스 찬송이나 부활 찬송은 교회 절기 때만 부르는 것으로 여겨왔는데 요즘은 금요일집회를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이를 보면서 그 동안 교회의 전통, 관습, 절기에 매여 부르던 찬송을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성도가 맡고 기도와 함께 간절히 자유투를 부르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은혜로 생각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별만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왔음을 볼 때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배를래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라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을 드려 영원한 왕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심을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께 나는 유황 드라네 만백성 찬송드리 만유 주 섬기세." 기도와 찬양의 유행을 드러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의지와 생각을 깨뜨리시자 주님 한 분만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목약 드라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세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 하심을 감도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쫓아세요! 만일 밤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데 아기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밝은 승리하신 주님!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슬픔, 고통을 모두 아기 예수께 내려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하늘의 위로, 기쁨,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날때도 무슨 일을 만나지나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승훈(권사, 호산나 찬양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99	김민아	19	고등부	정지혜(19)
2400	윤이나	19	대학부	이영지(13)
2401	덕수	19	외선부	홍승진(3)
2402	윤지호	19	외선부	정승욱(13)
2403	류규찬	19	청년 1부	이정현(14)
2404	이희선	19	청년 1부	김경애(14)
2405	엘리마	19	외선부	양승호(10)
2406	황백동	19	외선부	박선진(11)
2407	정정진	19	대학부	함지정(10)
2408	짜옥리나	19	외선부	이남숙(9)
2409	사미라나	19	외선부	
2410	김영환	19	청년 1부	김양선(8)
2411	김정민	19	청년 1부	
2412	이건	19	청년 1부	정혜미(6)
2413	조영환	10	청년 1부	정창수(3)
2414	오일기	19	외선부	이교훈(19)
2415	김시라	3	청년 1부	
2416	박진호	19	청년 1부	김은숙(7)
2417	조영환	1	청년 2부	김혜선(15)
2418	최기호	19	청년 2부	박종훈(5)
2419	이금주	19	대학부	이정현(3)
2420	최정민	19	대학부	이정현(3)
2421	임정현	14	청년 3부	김정현(14)
2422	황백동	19	고등부	구지연(1)
2423	김예미	15	청년 2부	김정현(15)

*송영호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문 205호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우대 봉사사역	정현민 12.20	박인기 09.03	류병복 12.20	여국경 02.20
안인환 11.20	나광영 12.20	정전호 10.20	고형환 10.20	위건환 02.20
김정현 02.20	강지훈 02.20	임현덕 05.20	이희식 05.20	이성호 12.20
하종현 05.20	안정호 10.20	장종선 10.20	양철호 10.20	이정호 15.20
최성규 12.20	이영명 10.20	이정호 05.20	김동현 05.20	김동현 15.20
윤수일 12.20	황종진 11.20	유재진 05.20	강병구 05.20	정성호 05.20
김철규 12.20	이윤진 05.20	양성태 05.20	유성택 05.20	유원희 05.20

■ 면접도사

윤인숙 10.20	한영준 2.20	홍순애 11.20	이옥주 02.20
김경아 10.20	안소은 12.20	김정연 2.20	김다별 14.20
한소희 10.20	김정자 11.20	김정희 2.20	이복순 14.20
전신영 10.20	김정자 4.20	김영미 05.20	유진경 05.20
강소숙 12.20	전영희 02.20	이혜숙 05.20	이소미 05.20

■ 찬양감독 강경진

■ 찬양지휘자 서순성

■ 찬양도사 김인애

■ 찬양도사 서요한

■ 찬양도사 장연희